

전주 덕일중학교 사서 교사 노은주
익산 어양중학교 사서 교사 이예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피어난 정의

『노 휴먼스 랜드』

김정 장편소설





책 소개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이 있어 살기 좋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름은 해마다 한계를 모르는 폭염으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해마다 몰아치는 한파로 매섭게 춥습니다. 하루하루 기후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고 몸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기후 재난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 버린 2050년의 서울이라는 소설 속 배경이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때는 2050년, 우리 삶의 일부였던 서울은 '노 휴먼스 랜드'로 지정됩니다. 연달아 닥친 기후 재난에 대응하려는 UNCDE(유엔기후재난기구)에 의해, 말 그대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땅이 된 것입니다. 이 노 휴먼스 랜드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다섯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진짜 정체를 숨기고 '시은'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참입한 주인공 미아는 한나, 크리스, 파커, 아드리안과 함께 말로만 듣던 할머니의 고향, 서울을 드디어 방문하게 됩니다.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노 휴먼스 랜드를 조사하려던 때, 단원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단원을 찾는 일행은 낯선 존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행 앞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던 노 휴먼스 랜드에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이 소설은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해결 방식을 보여 줍니다. 각기 다른 관점을 접하며 독자들은 어떤 방식이 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기후 재난을 극복하는 과제는, 다양한 개성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의 초점

이 독서 지도안은 독서 전·중·후 활동과 독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엮어 읽기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차시 읽기 전 활동에서는 책에 나온 단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상상해 보게 하며 독서를 시작하기 전 흥미를 이끌어 냅니다.

2~7차시는 읽기 중 활동으로, 『노 휴먼스 랜드』를 잘 읽어 내기 위해서 주요 인물, 개념 및 세계관,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인물이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스토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알게 되면 소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SF 소설인 만큼 스토리를 훼뚫는 세계관과 중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며, 중심 사건을 파악해 봄으로써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9차시는 읽기 후 활동으로, 가치 수직선 토론을 통해 소설 속에서 제시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계획했습니다. 같은 입장이라도 적극적 동의, 조금 동의 등과 같은 지지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됩니다. 가치 수직선 토론은 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고, 소수 의견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토론 방법입니다.

마지막 10~11차시는 기후 재난과 관련된 지구촌 사례를 알아본 뒤 유사 주제를 다룬 책, 영화와 엮어서 생각해 보며 사고를 확장하고 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내용	
1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에서 느낀 감정 공유하기
2~3	읽기 중 활동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세계관과 주요 사건 파악하며 읽기
4~5		
6~7		
8~9	읽기 후 활동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10~11		기후 재난 사례 알아보기 기후 재난에 관련된 책, 영화 읽기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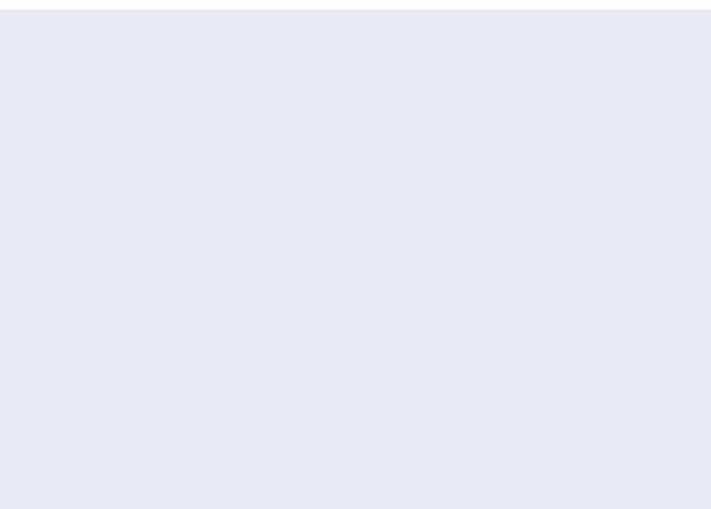
| 1차시 | 내용 상상하기



제목과 표지에서 느낀 감정 공유하기

1. 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자.

— 독서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2.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3개 이상 만들어 보자.

— 제목과 표지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많은 단서가 담겨 있다. 표지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의 생각과 감정도 헤아려 보도록 안내한다.

- 1.
- 2.
- 3.

(예시)

1. '노 휴먼스 랜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2. 꽃으로 보이는 식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3. 무너진 다리를 바라보는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할까?

●●● 읽기 중 활동

| 2~7차시 |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활동 1 등장인물 파악하며 읽기

1. 책 속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며 읽어 보자.

	시은		크리스
소속 및 역할		소속 및 역할	
행동		행동	
성격		성격	
그 밖의 특징		그 밖의 특징	

	파커		한나
소속 및 역할		소속 및 역할	
행동		행동	
성격		성격	
그 밖의 특징		그 밖의 특징	

활동 2 세계관과 주요 사건 파악하며 읽기

1. 다음은 책 속에 언급된 개념을 정리해 놓은 표이다.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을 <보기>에서 찾아 괄호 안에 적어 보자.

<보기>		
개념	설명	
(①)	기후 재난을 기점으로 나머지 세상과 분리된 곳. 과거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	
(②)	알래스카에 있는 난민 도시.	
(③)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만들어진 국제기구로, 출범 즉시 기후 난민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표준 환경법을 제정함.	
(④)	③에서 실시한 정책. 식량을 가진 국가는 난민들을 수용해 식량을 나누게 하고, 식량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④로 지정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함.	
(⑤)	인류 문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후 재난이 발생했으므로 국제기구, 국가, 사회 체제 등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⑥)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탄소를 포집하는 작물을 개발한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주목받음.	
(⑦)	기후 재난으로 불안과 우울이 극심해진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물. 사람이 ⑦의 냄새를 맡으면 콧속의 신경 세포가 화학 물질을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로 전달하고, 신호를 받아들인 뇌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줌.	

2. 책을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 세 가지를 선정해 보자.

사건 1	
사건 2	
사건 3	

3. 선정한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중요한 사건	선택한 이유

4. 모둠원들과 돌아가며 자신이 뽑은 중요한 사건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에 별점을 매겨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선정해 보자.

후보	모둠원	중요한 사건	별점
1			☆☆☆☆☆
2			☆☆☆☆☆
3			☆☆☆☆☆
4			☆☆☆☆☆
5			☆☆☆☆☆

우리 모둠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사건’

●●● **읽기 후 활동**

| 8~9차시 |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

(활동 1) 자신의 생각 정리하고 토론하기

1. 다음은 UNCDE(유엔기후재난기구)의 활동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며 읽어 보자.

1. 세계 표준 환경법 제정
 - ① 노 휴먼스 랜드 지정
 - ② 금우법을 비롯한 축산업 규제
 - ③ 물류 통제
 - ④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개인별, 기업별로 할당
 - ⑤ 기호품 생산 금지
2. 세계 표준 장례법 공표
 - ① 화장과 매장을 금지
 - ② 공동 장례소에서 모든 시신을 일괄적으로 처리
3.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
 - ① 임신 중단 수술과 정관 수술 지원

2. UNCDE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UNCED가 펼친 활동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법이나 정책

—UNCED가 펼친 활동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정책

—기후 재난에서 회복하기 위해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법이나 정책

3. UNCDE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적은 후, 칠판의 수직선 표에 붙여 보자.

*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점(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가치 수직선 토론 방법

1. 자신의 생각을 요약 정리하여 포스트잇에 적는다. 이때 교사는 생각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지나치다 등
2. 의견 포스트잇을 지지하는 정도(0점~10점)에 따라 칠판의 수직선 표에 붙인다.
3. 의견이 비슷한 학생끼리 모둠을 이루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다.
4. 모둠별로 칠판으로 나오게 해서 전체 의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5. 인상 깊은 다른 모둠 친구의 의견에 반박한다.

가치 수직선 토론의 장점

1. 집단 성의 힘을 이끌어 내는 토론 방법으로, 사고가 확장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용이하다.
2. 토론의 승자를 가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3. 논제에 대한 전체 학생의 의견 분포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다.

4. 다음은 플론 개발자인 앤 소장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신의 입장과 비교하며 읽어 보자.

“플론에 중독되면…… 자아의 경계가 흐릿해져. 다시 말해 나의 내부와 외부가 서서히 하나가 되는 거야. 주위에 존재하는 것이 누구든, 혹은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눈에 보이는 전부가 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결국 모든 것과 연결되는 거지.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거야.”

나는 앤이 잠꼬대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곳에 갇혀 살아서 이상해진 게 아닐까? 하지만 앤은 활기차게 설명을 이어 간다.

“그렇게 자아를 초월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굳이 남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 하지 않지. 그건 나에게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무언가를 파괴하지도 않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자연히 사라지는 거야. 폭력, 절도, 전쟁, 기후 문제까지. 플론은 사람들을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거야.”(본문 174면)

“플론으로 단순히 노 휴먼스 랜드 해제로 인한 분쟁만 막겠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플론은 전쟁과 기근, 폭력과 차별, 불평등과 기후 재난 걱정 없이 천년만년 인류가 계속 지구에 존재할 수 있게 할 유일한 방법이거든. 나, 너, 그리고 이 방 밖에 있는 연구원들, 네가 살았던 그레이 시티의 거주민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온갖 위험에서 지켜 줄 거야.”(본문 197면)

5. ‘플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실제로 개발할 수 있다면, 나는 플론 개발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플론 개발에 찬성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플론이 필요하다고 느꼈는가?

—플론 개발에 반대한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플론 대신 다른 식물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떤 식물을 만들 것인가?

(활동 1) 기후 재난 사례 알아보기

1. 기후 난민의 정의를 찾아 적어 보자.



(예시)

환경 파괴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2. 기후 난민과 관련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뉴스 기사	사례 2 교육 자료	사례 3 영상 자료
		

활동 2 기후 재난에 관련된 책, 영화 읽기

1. 제시된 글을 함께 읽어 보자.

『노 휴먼스 랜드』 김정 장편소설 (창비 2023)

한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집을 잃었다. 1차 세계 재난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다. 바닷가 근처였던 한나의 집은 높아지는 해수면에 그대로 수몰되었다. 그때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한나는 담담히 말했다.

변화가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진작부터 이민을 준비했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생각보다 고생스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새로운 동네에 완전히 적응했을 때쯤, 전 세계에 기후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기 시작했다. 폭염과 폭설, 가뭄과 한파, 지진과 쓰나미, 허리케인과 산불은 빗쟁이들처럼 찾아와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녔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기후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차 세계 재난이었다.(본문 30면)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 코슈카 장편소설, 곽노경 옮김 (라임 2023)

아까보다 더 강력해진 빗줄기가 사람들 머리 위로 사납게 쏟아졌다. 게다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 버릴 기세로 세찬 바람까지 불어 댔다. 하늘이 수문을 활짝 열어 놓은 듯했다.

(…)

지금은 무조건 각자 살아남아야 했다. 제아무리 웅장한 숲도 더 이상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없었다.(본문 33면)

실제로 섬이 가라앉고 있었다. 털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전에 미리 들어와 정박해 있던 선박이 이천 명의 주민들을 육지로 실어 날랐다.

“배가 되돌아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군가 소리쳐 말했다.

“제발 돌아왔으면……. 안 그러면 교통수단이 아예 끊겨 버려서 죄다 발이 묶일 거야!”(본문 38면)

2.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하루아침에 기후 난민이 되어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심정을 헤아려 보자. 『노 휴먼스 랜드』와 『폴리네시아에서 온 아이』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을 선택해 피난 당시 상황과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본 후, 205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미래의 자신 또는 지인에게 편지를 써 보자.

3. 제시된 글을 함께 읽어 보자.

『가이아의 선택』(『일인용 캡슐』수록작) 김소연 소설 (라임 2021)

“변종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효과를 내는 백신을 직접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슈퍼 백신, 모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은 네오 가이아의 설계로만 가능할지도 몰랐다.

테이아는 내심 마음이 놓였다. 네오 가이아야말로 진정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틀림없었다.

테이아가 혼자 생각에 빠져 고개를 끄덕이는데 가이아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 지구를 위한 백신!”

테이아가 언뜻 못 알아듣겠다는 표시로 미간을 좁혔다.

“지구를 위한 백신이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 종을 막는 약인데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지금 수의 신 분의 익로 줄이는 뱃신”

“뭘 줄이는 백식이라고요?” 테이아는 방금 들은 막을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다 (본문 48면)

4.『노 휴먼스 랜드』의 앤 소장과 「가이아의 선택」의 가이아가 원하는 지구와 인류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5. 제시된 글을 함께 읽어 보자.

「투모로우」 롤랜드 에머리히 영화

줄거리: 기후학자인 잭 훌 박사는 남극에서 빙하를 탐사하던 중 지구에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비웃음만 당하고 상사와의 갈등만 일으키게 된다. 얼마 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 난기류, 거대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보도되는 등 이상 기후 증세가 나타난다. 잭은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이 예견했던 빙하 시대가 곧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떠난다. 잭은 브리핑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구 남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인류는 지구의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

6.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안을 적어 보자.